

'97 제1, 2검정소 우수 농장상 수상한 경기양돈



▲깨끗한 종돈을 양돈농가에 보급하고자 심혈을 기울이는 경기양돈 이윤원 사장.

지난 2월 5일 본회 제2검정소와 2월 20일 본회 제1검정소에서 '97년 양 검정소 우수농장상을 수상한 경기양돈(대표 : 이윤원,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광덕2리 665번지)은 최근 5년동안 본회 선정 우수농장으로 계속 선정되는 등 판매되는 종돈의 균일성과 우수성을 성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경기양돈 이윤원 사장은 지난 87년도에 종돈업을 시작하여 본회 검정소에는 92년도부터 출품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이번에 양 검정소에 한해에 우수종돈장으로 선정된 것은 아주 우수한 종돈을 확보함은 물론 상양관리에 세심한 관리가 아니라면 결코 쉽지 않은 성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경기양돈은 1만평의 부지위에 건평 11동, 1,200평과 정화조 120평, 돈분처리장 500평으로 되어 있었으며, 전 돈방에 대하여 올-인, 올-아웃을 실시하여, 돈방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소독을 철저히 하여 돈방내 질병잔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었다.

경기양돈은 3,000여두의 돼지를 총 6명의 직원이 아주 세심하고, 의욕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며, 이사장도 직접 생산활동에 나서는 등 모두가 열심히 사양관리를 하고 있었다.

깨끗하고 위생적인 종돈선발에 가장 큰 역점 뒤

종돈선발은 강건하고 외모가 출중한 것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듀록 등 유색계인 경우는 캐나다에서, 요크셔 등 백색계는 영국과 미국, 그리고 일부는 다른 국가에서 수입을 해오고 있다. 이렇게 해서 수입되어진 종돈을 농장내 자체검정을 실시하며, 외모심사를 거친 종돈에 대하여, 80~90kg사이의 종돈을 10여평 돈방으로 8~10두씩 입식해서 군사시킨 다음 100~110kg 사이에 2차 선발을 하여 그 이후에 종부 대기사로 이동시켜 종돈출하를 하게 된다.

특히 질병에 대한 관리는 더욱 세심하게 하여,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으며, 모든 질병은 예방위주로 관리를 해주고 있었다. 특히 1검정소에서 실시하는 SEW사업에 맞추어 조기이유를 실시한 종돈을 출품하는 등 질병의 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었다.

경기양돈 이윤원 사장은 "최고로 우수한 종돈만을 고집하여 선발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깨끗하고 위생적인 종돈을 양돈농가에 보급하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히고 "양검정소에서 우수농장으로 선정된 것은 우리 농장의 우수성을 입증한 것"이라고 하였다. <취재 : 이병석> **養豚**